



8일 문을 여는 김왕주 아뜰리에&갤러리. 문화 공간이 부족한 동명동에 예술의 향기를 전하는 공간이다.

동명동 골목...예술 흐르는 전시장 오픈

따스한 봄날, 동명동 좁은 골목길을 걷던 누군가는 '깜짝 선물'을 받는지 모른다. 소박한 정원과 예쁜 2층 집,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림과의 행복한 만남까지.

분위기가 좋은 카페와 음식점이 즐비한 광주 동명동은 핫 플레이스다. 하지만 갤러리 등이 자리한 양림동과 달리 문화공간은 많지 않아 늘 아쉬웠다.

동명동 장동 로터리 인근 골목길에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공간이 문을 연다. 오는 8일 개관하는 '김왕주 아뜰리에&갤러리' (광주시 동구 동명로 7-6)다. 알뜰 인권도서관, 핫한 멕시코 음식점이 자리한 골목길에 마치 보물처럼 숨어 있다.

오래된 모교나무, 푸른 잔디가 깔린 작은 정원을 뒤로 하고 서 있는 갤러리는 1978년 지어진 2층 양옥집을 리노베이션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멋진 건물 외관이 눈에 띈다. 붉은 벽돌과 회색 벽이 어우러진 건물 1층, 전면면 유리로 만든 공간에는 김 작가의 대표 시리즈 '화장대'가 걸려 있다.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면 옛 가정집의 나무 바닥과 오래된 계단 등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살린 실내 공간이 눈에 띈다. 더불어 감각적인 리노베이션으로 포인트를 줬던 느낌도 전한다.

대지 396㎡(120평), 건평 231㎡(70평) 규모의 집 안으로 들어서면 생각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 눈에 들어온다. 1층과 2층의 거실과 방 등을 적절히 활용해 전시공간으로 꾸몄고, 주차장에 들어선 또 다른 전시장에는 설치 작품이 걸려 있다. 층고가 높은 이 공간은 따스한 나무와 붉은 벽돌이 감싸고 있다. 편히 쉬며 차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긴 나무 의자를 놓았고, 피아노를 가져다 뒀다. 누구나 자유롭게 연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선대 미술학과를 나온 김왕주(56) 작가는 집안 사정으로 한 때 작업을 접었다. 그를 다시 캔버스 앞에 불러 세운 건 주변의 따뜻한 이들과 가족이었다. 5년간의 공백 후 다시 그는 붓을 들었고, 이후 부산 조이갤러리와 함께 작품을 선보이며 아트페어 등에서 인기 작가로 떠올랐다.

김 작가에게 이 공간은 '선물처럼' 찾아왔다. 지역 기업인 강동그룹이 아무 조건 없이 갤러리와 작업실로 이용하도록 해줬기 때문이다. 강동그룹은 지역 예술인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강동문화공간을 오픈하고 갤러리로 꾸몄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을 사람

'김왕주 아뜰리에&갤러리' 내일 개관 45년 된 2층 양옥집 리노베이션 수·토 4일 오픈...화장대 연작 등 전시 "시민 누구나 들러 힐링했으면"

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다. 그래서 지난해 6월부터 공간을 조금씩 꾸미며 알뜰히 가꿨다.

"그림을 집었을 때 절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동명동을 찾는 젊은 친구들이 편하게 들러 그림도 보고 쉬었다 가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명동에 유명 맛집이 많은데 웨이팅 할 때 잠시 들렀다 가도 좋구요(웃음). 제 마음이 자연스레 스며드는 공간으로 꾸며볼 생각입니다."

세상을 향해 환한 웃음을 터트리는 아이, 알록달록 화려한 화장대, 어딘가로 질주하는 사람들. 그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따뜻함이 느껴지고 미소를 짓게 된다.

무엇보다 화사한 색채는 그의 트레이드마크다.

"다시 작품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대' 시리즈는 엄마를 떠올리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엄마도 여자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색동옷에 땀기까지 행겨주던 할머니도 떠오르구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으면, 시들지 않는 꽃처럼 영원히 화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우리 시대 엄마와 할머니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갤러리에서는 다채로운 캐릭터가 돋보이는 '인연' 시리즈, '바람 불어 좋은 날' 연작 등도 만날 수 있다. 김 작가는 캔버스 대신 투명한 아크릴 판에 그림을 그린다. 판화적 느낌이 나고, 붓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세밀한 선을 표현할 수 있어 애용한다. 화려한 색깔을 한번 톤 다운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빛에 따라 다채롭게 변하는 모습도 흥미롭다.

전시장은 일주일에 4일(수·토요일 오전 11시30분~오후 6시) 문을 연다. 작업일정 등에 따라 개방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문의 010-9581-7888.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래된 가정집을 개조한 '김왕주 아뜰리에&갤러리'

8~11일 '여성의 날' 행사 소년의 서·빵과 장미·광주극장 도서 5% 할인, '쿨 제인' 상영

'빵과 책과 영화'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특별한 행사가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

충장로 '광주 삼합'을 자처한 광주극장, 인문사회과학예술회관 소년의 서(화·토 낮12시-오후 7시), 빵과 장미(수·토 오전 10시30분-오후 6시)가 함께 연대한 이벤트다. 인접해 있는 세 곳의 가게를 2곳 이상 방문 구입해 도장을 찍으면 장미(3월 8일)를, 3곳 모두 방문해 구입하면 1000원 할인권(유효 기간 4월 1일)을 증정한다.

소년의 서는 여성의 날 주간(8일-11일)까지 여성, 페미니즘 도서 구입 시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극장에서는 여성의 권리를 다룬 영화 '쿨 제인'을 상영한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여성의 임신 중단 권리가 인정되기까지 시카고에서 임신 중절을 원하는 여성들을 비밀리에 도운 실존 단체 '제인스'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임신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조이가 '제인스'를 만나 세상을 바꾼 변화의 불씨가 되어가는 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시고니 위버가 제인스의 리더 역할을, 엘리자베스 벅스가 조이 역할을 맡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CC 개발 직군탐색교육 프로그램 전남대 '문화예술 경영의 이해' 교양 수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개발한 직군탐색교육 프로그램이 대학 교과목으로 편성돼 눈길을 끈다.

ACC 교육프로그램은 전남대 교양과목 '문화예술 경영의 이해' 수업에서 진행된다. 이번 교과목 편성은 ACC의 전문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대학 정규 교육과정에서 운영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강의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전남대 경영대 1호관에서 진행된다.

강사진은 문화예술 기획은 물론 경영 등 분야별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짜여졌다. 현장 경험과 함께 직접 전망을 설명해 학생들의 관련 분야 진출과 이해를 돕자는 취지다.

첫 번째 교육은 김중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이 나선다. 김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 직업세계 이해'를 주제로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조명할 예정이다.

이어 매주 월요일에는 문화예술후원매개전문가(민세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장, 김상미 블루버드씨 대표), 융복합문화기획자(조주현 연세대

겸임교수), 전시테크니션(김형욱 광일테크 대표) 등을 주제로 강연이 펼쳐진다.

아울러 공연(디지털) 미디어 전문가(배운경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음악 비즈니스 산업 전문가(이준상 윌리뮤직코리아 대표), 오디오북 나레이터(이은호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교육이 펼쳐지며 웹 소설 기획자/각색 작가(손상민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이사)를 주제로 한 교육도 예정돼 있다.

직군탐색교육은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큰 직군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추진한 신 직업 연구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 디지털 혁신 등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 직업을 선별해 구성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전남대 강신겸 문화전문대학원장은 "문화예술 분야 신 직군 프로그램 교육은 기술과 예술 융·복합 창작 역량 등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ACC와의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아한 음색...소프라노 김선희 독창회

14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오페라 아리아와 러시아 가곡의 만남' 소프라노 김선희(사진) 독창회가 오는 14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제40회 리사이틀인 이번 무대에서 그는 헨델의 '리날도' 중 '올게 하소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 중 '어떤 개인 날' 등 사람들에게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와 드라마에 삽입돼 많은 사랑을 받은 카치니의 '아베마리아'도 들려준다.

다양한 가곡 무대도 마련했다. 올해 탄생 150주년을 맞은 라흐마니노프의 러시아 가곡과 함께 지역 출신인 임원식 시인의 시에 김성훈 작곡가가 멜로디를 붙인 '구절초예'를 초연한다.

이번 무대는 정상급 연주자들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전남대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피아니스트 박은식과 베를린 국립예술대 출신으로 앙상블 마주얼 리더, 아르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도연이다.

조선대 사범대 음악교육학과를 졸업한



김선희는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베르첼리 G. B. Viotti 최고연주자과정, 이탈리아 도나제티 아카데미아 지휘과정을 졸업했으며 한세대학교 음악과에서 음악학(D.M.A)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GIC 광주국제교류센터 위원, 광주 성악가협회 공동회장, 칸타레 앙상블 리더로 활동중인 그는 뉴욕 UN 세계 고아의 날 포럼의 날 무대 등에 섰으며 오페라 '라보엠', '카르멘', '나비부인' 등 15편에서 주역을 맡았다.

현재 한세대학교, 조선대, 광주교육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외래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문의 010-7172-678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성가족재단 '양육자 성평등·성교육' 진행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양육문화 확산을 위해 '2023년 양육자 성평등·성교육'을 실시한다.

3월~11월까지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지역내 영·유아 양육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우리 지역내 성교육 전문강사진이 현장에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이번 성교육은 성에 대한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는 등 성평등·성교육을 통해 성차별 및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목적으로 실시된다.

재단은 세계 유일의 초저출생 국가로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아 키움지원단을 신설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성평등한 사회적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서 참조. /김미은 기자 mekim@

송민 작가 유고전 '아름다움과 희망'

4월말까지 화순군립 전남대학교요양병원 서암갤러리



'양귀비'

화순군립 전남대학교요양병원(원장 방희승)은 1층 서암갤러리에서 오는 4월말까지 송민 작가 전시회를 개최한다.

'아름다움과 희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난해 투병 끝에 요절한 송민 작가 유고전이기도 하다.

현선(玄善) 송민(1987-2022) 작가는 전남대 예술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했으며 서예, 문인화, 채색화, 민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쳤다.

송민 작가의 작품으로는 수국, 양귀비를 아름답게 표현한 채색화 작품과 함께 부귀

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모란도, 부부의 금슬을 표현한 화조도, 불로장생을 기원하는 십장생도 등이 나왔다. 송 작가는 광주 시미술대전 추천작가와 심사위원,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한광용 갤러리 디렉터는 "송민 작가의 작품에는 섬세하고 순수한 정신과 삶의 애착이 스며있다"며 "행복한 삶을 기원하는 우리에게 작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특히 환자분들께 희망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